

2018년 2월 10일 “(성경의 큰 숲 보기 4) 출애굽기: 내가 친히 가리라”(출 33:12-17)

<도입>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후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주: 출애굽 사건(구원), 시내산 언약(제사장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율법(십계명과 율례들)을 통해 나타냅니다.

[1] 성막을 지어라

율법 외에도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받았습니니다(25:8-9). 25~31 장에서 성막의 모양과 짓는 방식을 말씀하시고, 다시 35~40 장에서는 성막을 제작한 이야기가 보고됩니다.

성막의 주업무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자신을 구별(거룩)되게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사이든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갈 절박성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사람의 몇 가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옛 습관을 고치고 예배, 기도 및 관계가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과 성향은 성숙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옛 자신의 익숙한 말, 행동, 습관, 가치관 등은 예수 믿고도 반복됩니다. 이런 사람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과 참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구약의 장치가 제사입니다.

[2]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모세가 언약식 후 산에 올라 간 사이에 백성들은 조금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식 하면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종교적 욕구가 고양되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리더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 열정을 발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고 열정이 불타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른다면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32:1-5)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 명이 레위 지파의 칼에 죽습니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 용서를 탄원하죠. 하나님의 답변 33:1-3 '난 너희와 함께 안 가고 천사를 보내서 약속한 것은 이루어주겠다' 이에 백성은 통곡했고,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전환입니다. 모두는 초긴장 했고 모세가 진 밖에 친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백성은 지켜보며 엎드려 주께 경배합니다.

[3] 모세의 증보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33:14) 하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는 동행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안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백성들은 언약을 다시 맺습니니다(34:10-28). 백성들은 24 장 언약 체결 때보다 더 높은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금송아지 만드는 아픈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러나 죄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깊이 새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극악한 죄라도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롬 5:20 말씀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후반부 구조.

- A. 24:1-18 언약의 체결과 식탁교제의 영광
- B. 25-31:11 성막 설계에 대한 설명
- C. 31:12-18 안식일
- D. 32:1-33:11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거부
- E. **33:12-34:9 하나님의 동행 약속**
- D'. 34:10-35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수용
- C'. 35::1-3 안식일
- B'. 35:4-40:33 성막 제작에 대한 보고
- A'. 40:34-38 성막 완공과 임재(함께 하심)의 영광

12 장 출애굽 사건은 성도의 구원에 절대적입니다. 이것 없이 성도의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구원 사건만이 삶을 지탱해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완벽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의 여정에서 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34:14 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에서 메아리칩니다. **마 28:20** 읽음.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임재로 이 약속의 성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새하늘 새땅에서 **계 21:3** "...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심입니다. 당신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실 수 있는 일이지, 하시고 싶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축복에 매달리기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매달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명의 일을 주시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일과 삶이 잘 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니고, 내 일과 삶이 굴곡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맺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인정되고 이루어지려면 말씀 묵상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출애굽 사건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영광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출 32-34 장의 내용이 어떤 배경과 결과를 말하는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2.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3.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출애굽기가 나의 신앙에 어떤 면에서 도전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